

단락

본문

추론 결과

중심생각

1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 10일 날짜가 jump 했다

→ [달력표기날짜 ≠ 시간] 이였었다  
→ 날짜를 jump해서 맞춘 것이니까 시간이 빨랐었던 것이다

본문을 읽고 추론을 한다면 중심생각을 구성하게 된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 교황청이 지시했다(교황청이 왜?)

→ 종교(기독교)적 목적?

즉, 글은 추론을 유발시킨다

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 그레고리력을 시행하면서 가져온 변화이다

→ 그레고리력 이전에는 틀렸다

추론한 결과들은 서로 응집성이 있어 자연스럽게 중심생각으로 통합된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 배경지식(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을 참고

→ 춘분(날짜)가 진짜 춘분이 되었다 즉, [달력표기날짜 ≠ 시간] → [달력표기날짜 = 시간] 이 되었다

서두에서 중심생각을 파악한 뒤(굵은 네모) 이를 기준으로 이어지는 단락의 내용을 수용한다

→ 그레고리력 이전에는 부활절도 달력에서 틀렸었다

→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달력상 부활절이 정확히 부활절을 표기하도록 했다

서두의 중심생각은 뒤의 중심생각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이후의 중심생각은 서두의 중심생각에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2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 그레고리력 이전에 율리우스력

= 율리우스력 때 [달력표기날짜 ≠ 시간] 이였었다

(위에 쓸 건가...)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 달력이 실제보다 길면 해가 거듭될수록 특정 시점을 표기하는 날짜가 빨라진다

→ [달력의 1년(늦음) ≠ 시간(빠름)]  
= 동일 날짜가 돌아오는 것보다 절기가 빨리 돌아온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 춘분은 원래 21일인데 10일이 빨라졌다

= 동일 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절기가 돌아온다  
[달력표기날짜 ≠ 시간] → [달력표기날짜 = 시간]

→ 부활절도 서서히 실제와 달라졌다

→ [달력의 1년(늦음) ≠ 시간(빠름)]이니까 부활절도 달력상 이른 날짜에 도래한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율리우스였다

3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율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4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 그러나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율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 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율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

5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율리우스력의 년 길이가 실제보다 길었다는 것 상기

항성년이 진정한 1년인가?

회귀년을 사용하면 날짜상 춘분과 실제 시간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항성년을 사용하면 날짜상 춘분과 실제시간을 동일하게 할

회귀년을 사용하면 날짜상 춘분과 실제 시간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항성년1년 > 회귀년1년)이며  
율리우스력(태양력)1년 > 회귀년 1년 평균값

회귀년을 사용하면 [달력표기날짜 = 시간]이 가능하다  
부활절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항성년을 사용하면 [달력표기날짜 = 시간]이 불가능하다

회귀년을 사용하면 [달력표기날짜 = 시간]이 가능하다  
부활절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